

한국 화랑협회 발간

미술춘추 No.8

한국 근대화랑사 7 글: 이구열

천일화랑과 이완석

일전에 책상 서랍을 들치다가 봉투가 몇 장 나오기에 그 속을 보았더니, 54년도 7월에 x일에 [천일백화점 미술상설진열관] 이라고 하는 이상한 발신인에게서 보내온 '한국현대미술작가전'이라고 하는 불균형한 명칭의 전람회에 출품을 의뢰하는 안내장이었다. 개관 기일은 7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때 어떤 그림을 출품했었는지 기억치 못하고 있으나, 안내장에 '회화예술의 대중 침투로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대중 감상의 자유로운 시간의 확보와 설비, 설치가 불가결의 조건으로 사료되며, 이로써 민족미술의 발전과 해외 진출의 시도는 실천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운운'이란 문장 그대로, 억지로 웃어 넘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천일화랑은 환도직후의 화단에 새로운 힘을 배양하는 모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1957년 월간 신태양 잡지에 8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정규(1923-71)의 주목할만한 논평적 장편 에세이 '한국양화의 선구자들'(부제: 수상적 미술가 계보)의 첫머리에 나오는 천일화랑 언급이다. 화가이며 도예, 판화, 문필 활동도 많았던 필자 정규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물론 천일화랑은 당시의 화단적인 악조건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 왔다. 천일백화점 지배인 겸 상업미술계의 중진인 이완석 씨의 협력은 대단한 바 있지만, 그 천일화랑, 다시 말하면 천일백화점 미술상설진열관은 그후 반년을 계속치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종로 4가는 장사를 하는 곳이지 전람회를 할 지역은 못되는 곳이라면 실언이 될까?

그러면 천일백화점 미술상설진열관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하나의 비상설미술진열관이 되고 말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기억하건대, 사변 중 작고한 김종현, 이인성, 구본웅 3씨의 유작전을 개최한 것이, 그 당시 설비는 불충분하였었지만, 다시 찾은 서울에서 전화 중에 객사한 3씨의 유작전을 출선하여 천일백화점 미술상설진열관에서 개최하였다는 것은 3씨의 친지들의 우정 탓이라고는 하나, 천일백화점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규의 이 천일화랑 언급은 그것이 6.25 전란 직후 서울에서의 첫 영업화랑의 등장이었다는 사회적 의미와 천일백화점 측의 미술가 지배인이던 이완석의 비영리적인 한때의 의욕을 알려 주는 긴요한 증언이다. 그러나 충분한 증언은 아니다. 언급의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가도 소홀한 편이다.

이완석(1915-69)과 천일백화점 미술상설진열관의 일환으로 꾸며졌던 천일화랑의 내막은 더 좀 확실하게 인식돼야 마땅하다. 그때는 종로4가로 불렸지만 지금의 청계로에 접했던 천일백화점

(1977년에 없어진 후 서울신탁은행 동대문지점 신축 빌딩이 들어섰다)에 많이 연구한 운영방침의 화랑이 생긴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정규의 글에도 밝혀지듯이 1954년 7월 하순의 일이었다. 6.25동란으로 증발해버린 총무로 대원화랑의 뒤를 이은 이 개척적인 새 화랑의 출현 경위를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는 없으나, 당시 백화점 지배인이던 이완석의 미술계와 사회를 위한 적극적 발상이자 추진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자신이 산업미술가로서 미술계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었던 이완석은, 6.25동란으로 참혹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던 가까운 친구를 포함한 여러 미술가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베풀고자 자신의 백화점 지배인 위치를 활용한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화신, 동화(지금의 신세계), 미도파 백화점 화랑이 취했던 단순한 대여 운영과는 다른 본격적 영업화랑이자 종합적인 미술 센터를 의도하고 있었다. 천일화랑 개관 기념전으로 '현대미술작가전'이 개최될 때에 백화점 측은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면서 화랑의 운영방침도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방향이었다.

1. 고전미술, 현대미술의 진렬(매월 진렬 교체)
2. 작품 즉매, 대서, 고미술 감정
3. 한국미술의 해외 소개
4. 미술강좌 (사계 권위자 초빙)
5. 표구, 액연, 미술재료 일절

*매 일요일마다 제 화백을 초빙하여 선자화 특별 휘호

대단한 의욕이었다. 그런 생각과 의욕을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완석 지배인이 미술가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백화점 고객들에게 가난한 미술가 친구들의 작품을 적극 팔아주자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미술교양의 기회와 환경 조성이 긴요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덕에 많은 화가가 실제로 여러 형태의 도움을 받았다. 다음에 열거하는 개관기념전 출품자들이 천일화랑과 처음부터 밀접히 연관을 가진 작가들이었다.

동양화 - 고희동, 김은호, 이상범, 이응로, 배렴, 장우성, 김영기, 이유태, 장덕, 정진철, 박생광, 이현옥, 김화경

서양화 - 도상봉, 이마동, 김인승, 김환기, 남관, 이봉상, 박영선, 박득순, 박고석, 윤중식, 이중섭, 장욱진, 한묵, 주경, 한홍택, 이세득, 권옥연, 이종무, 정규, 조병현, 박수근, 황유엽, 김두환, 최영림, 손응성

조각 - 윤효중, 김경승

출발이 그렇듯 의욕적이었으나, 정규가 지적하고 있듯이, 동대문 시장과 접하고 있는 종로 4가의 비문화적 위치성 때문이었던가, 천일백화점화랑은 활기있는 지속이 어려웠다. 결국 '반년을 계속 치 못하고 폐쇄되고 말았다'는 것이 대체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거기서 개최된 김종현,

구본웅, 이인성 3인유작전(1954년 9월)은 그전의 대대적인 개관기념전과 함께 근대한국화랑사에서 천일화랑의 한때의 존재를 뚜렷하게 해주는 기록이다. 더구나 앞에 언급한 그 운영방침의 다각적 설정과 시도는,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어도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3인유작전의 김종현, 구본웅, 이인성은 6.25 전쟁중에 서울에서 52세, 47세, 38세로 각각 타계하고 있었다. 고난 속의 악성 발병과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죽음들이었다. 그들은 동란 전해인 1949년에 1회전을 가진 국전의 추천작가들이자 심사위원도 역임한(김,이) 쟁쟁한 화가들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미술계의 커다란 충격이자 슬픔이었다.

휴전이 성립되고 사회가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하던 1954년에 대한미협(당시 회장 고희동)이 전체 미술인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표시한 것이 3인유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장소로 택한 것이 마침 천일백화점에 미술가 지배인이던 이완석이 다각적 운영계획으로 개설한 천일화랑이었다.

유족들의 협조로 추진된 대한미협 주최 김종현, 구본웅, 이인성 3인유작전은 미술계의 여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 절차도 병행되었다. 그때 여러 비용은 천일화랑 측, 곧 이완석 지배인이 일절 부담했다. 그 자신 유작전 작가들과 생전에 가까이 접촉하고 존경하던 관계였다.

충남 공주 태생으로 동경의 태평양미술학교 도안과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던 이완석은 8.15 해방전에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제약회사의 하나였으며, 지금도 존속하는 '조고약' 본포의 도안 담당으로 일 자리를 얻고 있었다. 동경 유학 때에 '조고약'사장의 아들과 긴밀한 친구가 된 관계로 그렇게 된 후 이완석은 사장으로부터 관리능력도 인정을 받았다. 6.25 직후 종로 4가의 조고약 본포 건물이 천일백화점이란 자매 경영체로 새출발할 때에 그는 백화점 전체를 관리하는 지배인이 되었던 것이다.

천일백화점 4층에 설정했던 자신의 각별한 집착의 화랑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완석은(조사장이 작고한 후엔 경영사장까지 역임한다) 1960년 전후부터 1969년에 불의의 고혈압으로 54세의 생애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화랑자리에 한국민예품연구소를 만들어 새로운 집념을 나타냈었다. 토속적인 각종 민예품과 그 복제품의 수집, 제작, 판매 센터였다. 그것도 대단히 깊은 인식의 발상이었으나 역시 여러 원인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발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중단되고 말았다.

나도 거기에 여러 번 찾아가 이완석 사장의 민예품 사랑과 그 보급에 대한 열의 및 계획을 직접 설명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곳은 또 언제나 많은 미술가들의 집합소였다. 한홍택, 조능직, 정규, 김관현 등과 미술평론가 이경성, 석도륜 등이 특히 자주 들르곤 했었다. 이완석 사장의 인품이 아주 온후하고 모가 없으며,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대해 주어 많은 미술가들이 그를 좋아했었다.

한편 이완석은 8.15해방 직후인 1925년 12월에 한홍택, 조능직 등과 조선산업미술가협회(지금도 대한산미협으로 존속)를 창립하여 그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고, 그 협회전과 대한미협전에 회원으로 작품을 출품하는 창작활동도 보였다. 그러나 그 창작활동은 천일백화점 경영자로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계속> (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

韓國의 近代 畫廊史

7

李龜烈

天一畫廊과 李完錫

『일전에 책상 서랍을 들치다가 봉투가 몇 장 나오기에 그 속을 보았더니, 54년도 7월 X일에 「天一百貨店 美術常設陳列館」이라고 하는 이상한 발신인에게서 보내온 「韓國現代美術作家展」이라고 하는 불균형한 명칭의 전람회에 출품을 의뢰하는 안내장이었다. 개관 기일은 7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때 어떤 그림을 출품했었는지 기억치 못하고 있으나, 안내장에 「繪畫藝術의 대중 침투로써, 언제나 볼 수 있는 대중 감상의 자유로운 시간의 확보와 설비, 설치가 불가결의 조건으로 사료되며, 이로써 민족미술의 발전과 해외 진출의 시도는 실천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운운」이란 문장 그대로, 억지로 웃어 넘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天一畫廊은 還都 직후의 畫壇에 새로운 힘을 배양하는 모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1957년 월간 〈新太陽〉 잡지에 8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鄭圭(1923-71)의 주목할만한 논평적 장편 에세이 「韓國洋畫의 先驅者들」(부제·隨想的 美術家 系譜)의 첫머리에 나오는天一畫廊 언급이다. 화가이며 도예·판화·문필 활동도 많았던 필자 鄭圭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물론天一畫廊은 당시의 화단적인 악조건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 왔다.天一백화점 지배인 겸 상업미술계의 중진인 李完錫씨의 협력은 대단한 바 있지만, 그天一畫廊, 다시 말하면天一백화점 미술상설진렬관은 그후 반년을 계속치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중

로 4가는 장사를 하는 곳이지, 전람회를 할 지역은 못되는 곳이라면 失言이 될까?

그러면天一백화점 미술상설진렬관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하나의 비상설미술진렬관이 되고 말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기억하건대, 사변 중 작고한 金重鉉·李仁星·具本雄 3씨의 遺作展을 개최한 것이, 그 당시 설비는 불충분하였었지만, 다시 찾은 서울에서 戰火 중에 객사한 3씨의 유작전을 출선하여天一백화점 미술상설진렬관에서 개최하였다는 것은 3씨의 친지들의 우정의 탓이라고는 하나,天一백화점으로서 뜻하지 않은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다.』

鄭圭의 이天一畫廊 언급은 그것이 6·25 戰亂 직후 서울에서의 첫 영업화랑 등장이었다는 사회적 의미와天一백화점 측의 미술가 지배인이던 李完錫의 비영리적인 한때의 의욕을 알려 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그러나 충분한 증언은 아니다. 언급의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가도 소홀한 편이다.

李完錫(1915-69)과天一백화점 미술상설진렬관의 일환으로 꾸며졌던天一畫廊의 내막은 더 좀 확실하게 인식돼야 마땅하다. 그때는 鍾路 4가로 불렸지만 지금의 淸溪路에 접했던天一백화점(1977년에 없어진 후 서울신탁은행 동대문지점 신축 빌딩이 들어섰다)에 많이 연구한 운영방침의 화랑이 생긴 것은 앞에서 인용한 鄭圭의 글에도 밝혀지듯이 1954년 7월 하순의 일이었다. 6·25 동란으로 증발해 버린 忠武路 大元畫廊의 뒤를 이은 이 개척적인 새 화랑의 출현 경위를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는 없으나, 당시 백화점 지배인이던 李完錫의 미술계와 사회를 위한 적극적 발상이자 추진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자신이 산업미술가로서 미술계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었던 李完錫은, 6·25 동란으로 참혹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던 가까운 친구를 포함한 여러 미술가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베풀고자 자신의 백화점 지배인 위치를 활용한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和信·東和(지금의 신세계)·미도파 백화점 화랑이 취했던 단순한 貸與 운영과는 다른 본격적 영업화랑이자 종합적인 미술 센터를 의도하고 있었다.天一畫廊 개관 기념전으로 「現代美術作家展」이 개최될 때에 백화점 측은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면서 화랑의 운영방침도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방향이었다.

1. 古典美術·現代美術의 진렬(매월 진렬 교체).
 1. 작품 即賣、貸畫、古美術 감정.
 1. 한국미술의 해외 소개.
 1. 미술강좌 (사계 권위자 초빙).
 1. 表具、額緣、미술재료 일절.
- ※ 매 일요일마다 제 화백을 초빙하여 扇子畫 특별 회호.

대단한 의욕이었다. 그런 생각과 의욕을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李完錫 지배인이 미술가였

기 때문이었다. 그는 백화점 고객들에게 가난한 미술가 친구들의 작품을 적극 팔아주자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미술교양의 기회와 환경 조성이 긴요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덕에 많은 화가가 실제로 여러 형태의 도움을 받았다. 다음에 열거하는 개관기념전 출품자들이 天一畫廊과 처음부터 밀접히 연관을 가진 작가들이었다.

동양화=高義東·金殷鎬·李象範·李應魯·裴濂·張遇聖·李惟台·金永基·張德·鄭鎭澈·朴生光·李賢玉·金華慶

서양화=都相鳳·李馬銅·金仁承·金煥基·南寬·李鳳商·朴泳善·朴得鎔·朴古石·尹仲植·李仲燮·張旭鎭·韓默·朱慶·韓弘澤·李世得·權玉淵·李種武·鄭圭·趙炳賢·朴壽根·黃瑜燁·金斗煥·崔榮林·孫應星

조각=尹孝重·金景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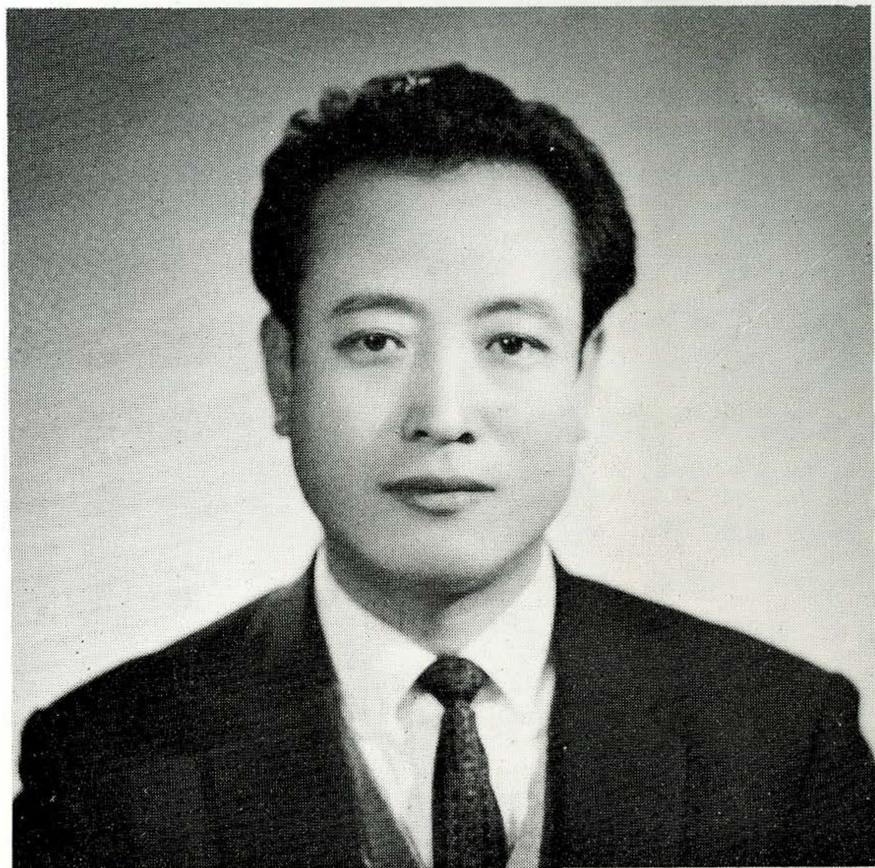
출발이 그렇듯 의욕적이었으나, 鄭圭가 지적하고 있듯이, 동대문 시장과 접하고 있는 종로 4가의 비문화적 위치성 때문이었던가, 天一백화점 화랑은 활기 있는 지속이 어려웠다. 결국 『반년을 계속치 못하고 폐쇄되고 말았다』는 것이 대체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거기서 개최된 金重鉉·具本雄·李仁星 3人遺作展(1954년 9월)은 그전의 대대적인 개관기념전과 함께 近代韓國畫廊史에서 天一畫廊의 한때의 존재를 뚜렷이 해주는 기록이다. 더구나 앞에 언급한 그 운영방침의 다각적 설정과 시도는,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어도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3人遺作展의 金重鉉·具本雄·李仁星은 6·25 전쟁 중에 서울에서 52세, 47세, 38세로 각각 타계하고 있었다. 고난 속의 악성 발병과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죽음들이었다. 그들은 동란 전해인 1949년에 1회전을 가진 國展의 추천작가들이자 심사위원도 역임한(金·李) 쟁쟁한 화가들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미술계의 커다란 충격이자 슬픔이었다.

휴전이 성립되고 사회가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하던 1954년에 大韓美協(당시 회장 高義東)이 전체 미술인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표시한 것이 3人遺作展이었다. 그리고 그 장소로 택한 것이 마침 天一백화점에 미술가 지배인이던 李完錫이 다각적 운영계획으로 개설한 天一畫廊이었다.

유족들의 협조로 추진된 大韓美協 주최 金重鉉·具本雄·李仁星 3人遺作展은 미술계의 여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 절차도 병행되었다. 그때 여러 비용은 天一畫廊 측, 곧 李完錫 지배인이 일절 부담했다. 그 자신 遺作展 작가들과 생전에 가까이 접촉하고 존경하던 관계였다.

충남 公州 태생으로 東京의 太平洋미술학교 도안과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던 李完錫은 8·15 해방 전에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제약회사의 하나였



李完錫 씨

으며 지금도 존속하는 「조고약」 본포의 도안 담당으로 일자리를 얻고 있었다. 東京 유학 때에 「조고약」 사장의 아들과 긴밀한 친구가 된 관계로 그렇게 된 후, 李完錫은 사장으로부터 관리능력도 인정을 받았다. 6·25 직후, 종로 4가의 「조고약」 본포 건물이 天一백화점이란 자매 경영체로 새출발할 때에 그는 백화점 전체를 관리하는 지배인이 되었던 것이다.

天一백화점 4층에 설정했던 자신의 각별한 집착의 화랑이 뜻대로 되지 않자, 李完錫은(趙사장이 작고한 후엔 경영사장까지 역임한다) 1960년 전후부터 1969년에 불의의 고혈압으로 54세의 생애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화랑자리에 한국민예품연구소를 만들어 새로운 집념을 나타냈었다. 토속적인 각종 민예품과 그 복제품의 수집·제작·판매 센터였다. 그것도 대단히 깊은 인식의 발상이었으나 역시 여러 원인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발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중단되고 말았다.

나도 거기에 여러번 찾아가 李完錫사장의 민예품 사랑과 그 보급에 대한 열의 및 계획을 직접 설명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곳은 또 언제나 많은 미술가들의 집합소였다. 韓弘澤·趙能植·鄭圭·金寬鉉 등과 미술평론가 李慶成·昔度輪 등이 특히 자주 들르곤 했었다. 李完錫사장의 인품이 아주 온후하고 모가 없으며,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대해 주어 많은 미술가들이 그를 좋아했었다.

한편 李完錫은 8·15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에 韓弘澤·趙能植 등과 조선산업미술가협회(지금도 大韓產美協으로 존속)를 창립하여 그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고, 그 協會展과 大韓美協展에 회원으로 작품을 출품하는 창작활동도 보였다. 그러나 그 창작활동은 天一백화점 경영자로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계속>

(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